

아내가 좋아하는 남편의 매력은 따로 있다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

www.hfamily.co.kr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편을 챙기는 아내, 아내에게 과연 당신은 어떤 남편일까? 한번쯤 자신이 아내에게 어떤 남편이었는지 돌아보자.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감사의 표시를 하는 남편

아내는 새벽부터 일어나 남편의 출근이 늦지 않도록 아침을 마련하고는 남편을 깨우며 뒷바라지를 하고 이것저것 챙긴다. 가까운 상점에서 살 수 있는 것도 멀리까지 가서 일, 이백원 싼 집을 찾는다.

남편의 몸이 상하지나 않을까 해서 자기는 먹는 게 부족해도 생선 한 토막이라도 남편이 젓가락질을 하도록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내요, 자기 웃은 못 해 입어도 남편 웃을 해주려고 애쓰며 신경 써 주는 사람이 바로 아내인 것이다. 만일 이런 아내의 정성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남편이 있다면 목석 같은 남자가 아닐 수 없다. 아내는 보수를 받지 않는 가정부가 아니다.

아내의 일에 대한 보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매월 삼십만원씩 은행의 적립식 목적신탁을 삼십 년간만 들어준다고 치자. 자그마치 오십칠억원이 넘는다. 이것은 순수한 육체노동의 대가이다.

게다가 자녀를 기르는 대가, 기타 여러 가지 정신적 노동의 대가까지 포함한다면 몇백 억 원이라는 엄청난 값이 매겨져 나올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도 무보수로 움직이는 아내에게 당신은 꿀 먹은 벙어리 노릇만 하겠는가. 아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

아내를 도와주는 남편인가?

“여보,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내가 애교 띤 목소리로 도움을 청해 온다.

“아이 참, 신경질나게 그러네. 지금 텔레비전에서 한참 신나게 프로야구를 하는데...” 당신은 이런 인정머리 없는 남편은 아닌가? 조그마한 몸집으로 큰 일을 하려니 어지럽고 허리가 아프고 식신이 쭈시는 것이 여자들이다. 그런데도 도와주기는 커녕 불평 불만을 하는 남편이라면 진정한 남편이라 할 수 없다.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아내를 돕는 것이 바로 자신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가

남편은 그 집의 주인인 가장이다. 그리고 가장은 어떤 어려움이나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기 가정을 지킬 의

무가 있다. '설마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가정을 파괴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철통 같은 경비를 해도 도둑이 드는데 하물며 가정은 어떨까?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친구들과 어울려 2차다, 3차다하며 밤 한시, 두 시에 들어오는 남편은 주인이 아니라 하숙생이다. 하숙생이 주인 노릇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러고서도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 고 아내에게 큰소리치는 남편이라면 일단 주인으로서의 실격이다.



아내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첫째가 배우자의 선택, 둘째가 일의 선택, 셋째가 인생관리의 선택,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3대 선택이다. 이 선택의 옳고 그름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한다. 아내는 내가 선택한 대상이다. 싫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떠맡긴 월부책이 아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혹시 나는 무책임한 남편은 아닌가?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도록 행동한 일은 없는가? 남편은 아내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과연 에티켓 점수는

아무리 부부간이라고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다. 에티켓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값진 향기이다. 서로가 예의를 모른다면 동물보다 나를 게 없는 것이다. 어쩌다 싸움이 생기거나 화가 날 때, 쌍소리를 하며 버럭 소리

를 지르는 남편이 있다.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이런 말을 마구 퍼붓는 사람은 이미 부부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예의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한다.

중요한 날을 기억하는가

“여보, 오늘 퇴근하는 즉시 일찍 들어오세요.” 출근길에 아내가 일찍 들어오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오늘은 기념할만한 날, 즉 아내의 생일이거나 그 밖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이다. 아내의 생일을 당신은 정확히 기억하는가? 그밖에도 현명한 남편이라면 양쪽 부모 형제의 생일, 제사, 기념일들은 기억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아내의 생일인 것을 알아야 한다. 하루쯤 잊었기로서니 그렇게 뽀로통할 것이 뭐냐는 남편은 역시 자격 상실. 자기 생일은 기억하면서 자기와 일심동체인 아내의 생일을 잊었다는 것은 바쁘다는 것만으로는 합리화될 수 없다.